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환경분야 유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은 지난 92년 환경과 관련된 정책 및 기술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환경정책연구의 특성상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접목된 학제적 연구 필요성에 따라 사회과학, 자연 및 인문과학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여 환경정책 수단의 개발, 집행 결과의 평가 및 목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정책이념의 증추수단이면서, 합리적 환경정책의 결정 · 관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착 · 발전을 위해 평가서의 검토와 평가기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핵심 중점사업 >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수립

-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국가환경종합계획 기본 틀 마련
- 환경 · 사회 · 경제 제 분야의 통합적 정책수단 개발

국내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및 관리기법의 연구 · 개발

- 맑은 물, 공기, 토양의 보전과 안전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 개발
-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 · 자연환경 보전정책 연구
- 생태계 보전 및 환경위해성 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및 기법 개발
- 환경산업 촉진 및 환경규제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연구 · 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 공정성 제고

-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및 평가기법의 개

발 ·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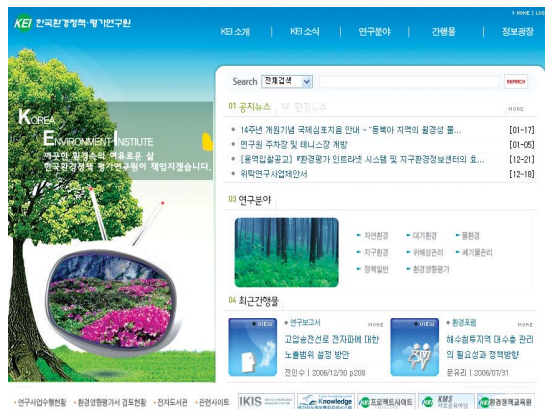
- 효율적 국토관리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기능 제고
- 통합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지구환경 보전과 국제환경협력의 선도

- 환경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대응을 위한 연구활동 추진
- 동북아 지역 환경보전전략 개발
- 남북환경협력사업 추진
- 국제환경기관과의 협력 강화

환경정보의 제공과 환경정책 교육 · 홍보

- 환경교육 활성화 및 연구성과의 홍보 확대
- 환경정보DB 구축 및 환경정보화사업 확대



생태건축연구소

그 대건축 이래 엄청난 속도로 잠식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이기를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서 건축의 희망, 희망의 건축은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길 찾기를 시작하였다. 이에 건축에 있어서의 생태주의를 그 화두로 삼아,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디자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생태건축연구소(소장 이윤하)다.

생태계의 순환성과 소통체계를 찾아가고자 하는 생태건축의 기본 개념을 연구소의 이념으로 하며, 건축으로서의 전문영역과 사용자로서의 일반영역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한 장이다. 연구소는 이에 관한 이론과 설계 및 시공기법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생태건축에 관한 자료, 정보를 공유한다. 또 생태건축 교육 강좌를 통해 생태건축의 보급과 대중화에 앞장서고 정기적인답사, 세미나, 심포지엄을 개최해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을 지원한다.

연구소 이윤하 소장은 생태건축을 '인간주거환경의 쾌적성을 추구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건물 내 공기흐름, 에너지절감, 녹지와 공지의 활용, 새집증후군 예방 등이 요소가 되며 재료의 순환성에 의해 흙벽돌, 나무, 돌, 짚풀 같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또, 인체에 해가되는 화학성 재료대신 무해한 소재를 선호하며 재활용할 수 있거나 폐기물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의 순환성을 위해 화석연료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자연에너지로 대안에너지 장치와 미기후를 이용한 냉난방설계법을 적용한다. 여기에 태양열,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다. 또한, 지열을 이용한 보조에너지 채집과 동식물을 이용한 재활용에너지,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생태건축은 이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와 풍력, 조력발전기 등 적절한 장비를 첨가함으로써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액티브하우스(active house)로 분류하며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좋은 디자인이 된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 건물에 일괄적 형태로 접목된 태양광발전을 꼬집으며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BIPV시스템을 지목했다.

오는 2008년, 그는 전남 곡성군 죽곡면에 '생태건축마을'을 시공하기 위해 디자인설계에 들어갔다. 200여세대(138,000m²)가 들어설 그곳에 생태건축과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접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